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학술적 가치와 발전전략

서문성* · 김승철** · 안태건*** · 김동윤****

A Study on the Academic Value and Development Strategy of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Seo, Mun-Sung · Kim, Seung-Chul · Ahn, Tae-Kun · Kim, Dong-Yoon

Abstract

The Korea Port Economics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85 and has been operated for academic research on port economics and research on port logistics. Marking the 35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development strategy for academic societies and academic journal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from the first issue of 2017 to the December issue of 2019, the utilization and systematic nature of this journal, and the efforts impleme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journal.

The recognition, utilization, and subject inconsistencie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academic value of the journal. The findings suggested the journal's academic excellence, as evidenced by its highest ranking by Journal Impact Factor among agro-oceanography journals (among 77 journals) and marine transport journals (among four journals). Furthe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is academic journal was presented with reference to research characteristics and specialization efforts.

Key words: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Journal Impact Factor, Times Cited, KCI

▷ 논문접수: 2020. 02. 24. ▷ 심사완료: 2021. 03. 29. ▷ 게재확정: 2021. 03. 29.

* 금강대학교 교수, 주저자, msseo1@hanmail.net

**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교신저자, dony1212@ynu.ac.kr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공동저자, tkahn@pknu.ac.kr

****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강사, 공동저자, ace9618@gmail.com

I. 서론

한국항만경제학회는 창립 된지 35년 전통(1985년 창립)의 학회로서 항만, 물류 및 해양산업분야에서 학문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 및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통해 해당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만연구 전문학회이다. 학회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항만에 대한 연구를 35여년 가까이 연구해 왔고 그 결과 많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되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지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는 1985년 제1권이 발간된 후 최근 2020년 제36권 제4호가 발간되었는데 해운물류, 해상운송 등의 해운분야와 더불어 항만물류, 항만정책, 항만마케팅, 항만조직 및 인사, 해양관광 등의 항만 분야에 특화된 연구논문이 투고되어 명실상부한 항만 연구의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각종 문제 해결형의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정책제시 및 운영에 있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증대, 신진학자들의 우수 논문 발굴을 위한 기회의 장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회원 참여로 소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항만, 물류, 해양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학회단체중 항만을 주제로 하는 매우 극소수 존재하는 단체로서 독립성 및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특별기고에서는 이러한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학문적 발자취를 살펴보고 학술적 가치와 현황및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와 학문적 의의를 도출하고 향후 우리 학회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해운항만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문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학술지 발행과 체계성

1. 학회지 역사

한국항만경제학회는 항만경제 운영관리 및 그 밖의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5년 7월 창립하여 현재 총 회원 약 720여명의 항만경제전문학회단체이다.

표 1.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원현황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기관회원	19명	정회원(연회원)	458명
평생회원	202명	임시회원	41명
계		계	720명

한국항만경제학회의 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는 1985년 제1권 제1호, 총 6편 게재를 시작으로 해운물류, 해상운송 등의 해운분야와 항만물류, 항만정책, 항만마케팅, 항만조직·인사, 해양관광 등 항만 분야에 특화된 연구논문을 발간하는 명실상부한 항만 연구의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회지는 해운, 항만물류 등 항만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간 4회(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발행하고 있으며 2004년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2007년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등재학술지를 유지하고 있다.

표 2. 학술지 등재이력

년월	구분	이력상세
2004.01 ~ 2006.12	KCI 후보	· 2006년 1월 등재후보 1차 PASS · 2004년 1월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2007.01 ~ 현재	KCI 등재	· 2007년 1월 등재학술지 선정 · 2010년 1월, 2013년 1월, 2017년 1월 등재학술지 유지

2. 학술지 체계성

한국환경경제학회지는 발행규정 내 1년 4회 발행일을 명시하고 있으며(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실제 논문 발행일과 규정상 발행일의 평균오차 일수는 5.9일로 한국연구재단의 21일 평균오차 권고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표 3. 한국환경경제학회지 발간횟수 및 실제발행일

구 분	발간횟수	권 호	실제 발행일
2017년	4회	33권 1호	2017년 4월 6일
		33권 2호	2017년 7월 4일
		33권 3호	2017년 10월 13일
		33권 4호	2018년 1월 5일
2018년	4회	34권 1호	2018년 4월 5일
		34권 2호	2018년 7월 5일
		34권 3호	2018년 10월 5일
		34권 4호	2019년 1월 6일
2019년	4회	35권 1호	2019년 4월 5일
		35권 2호	2019년 7월 3일
		35권 3호	2019년 10월 4일
		35권 4호	2020년 1월 8일
평 균	4회		

특히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세부요건 5가지 요소¹⁾중 모두를 만족하고 있어 학술지로서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학술지인용색인 등록여부를 충족하고 KCI 내 ISSN,

eISSN 및 논문별 상세정보 DOI 정보 등 2017년 이후 게재논문 총 102편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및 수록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2곳의 웹사이트²⁾를 통해 창간호부터 원문논문서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경제학회지」에 게재되는 전체 논문의 구성과 체재의 완전성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 관련해서는 논문투고규정을 두고 있다. 논문투고규정에서 투고자가 학회지 편집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투고규정에서 학회지 ‘논문집필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투고자에게 논문샘플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학회지 논문집필요령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회지 논문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성과 가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논문샘플은 실제 투고자가 논문샘플을 이용하여 논문 작성할 수 있도록 HWP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논문의 집필요령에 부합하는 글자크기, 글자체, 줄간격, 자간, 각주 표기, 그림, 표, 자료 및 단위 표기 방법 등을 예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샘플을 투고자가 이용하도록 하여 「한국환경경제학회지」에 게재되는 전체 논문이 각기 다른 투고자에 의해 작성되어도 논문집으로서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사전에 논문의 완전성과 가독성 등을 확인한 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의 논문투고요령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논문 심사를 반려하고 있으며, 투고자에게 학회지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샘플을 참고하여 학회지에 맞는 편집을 요구하고 된다.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오탈자 검정, 논문투고요령의 충족 여부, 표와 그림 자료의 표기 일치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논문집을 출간하기 전 전문 출판·인쇄 업체에 의뢰하

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세부요건 5개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발행기관(학회 및 기타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및 학술지 정보가 누락없이 등록되어 있을 것(발행간기, ISSN, eISSN 포함) ②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평가대상 개별 논문 원문 및 논문 정보(DOI, 공저자 정보, 논문명 및 저자명의 로마자, 게재논문의 투고·심사·게재확정일자)가 누락없이 등록되어 있을 것 ③ 발행규정에 발행일이 연, 월, 일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을 것 ④ 학술지 투고규정에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가 제시되어 있을 것 ⑤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KJCI)에 저작권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2) 한국환경경제학회지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http://www.kportea.or.kr/treatise/treatise_list.asp), KCI논문인문서비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sereld=001504>)

여 개별 논문의 별쇄본과 전체 논문집의 수정, 편집, 인쇄를 진행하도록 하여 논문집 구성과 체제의 안정성, 통일성,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3. 학술지 논문심사의 엄격성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학회의 자체 논문심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학회의 논문심사시스템은 논문정보, 심사현황, 최종논문, 심사비용, 논문게재비용 등 논문투고부터 게재비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여 편집위원회 논문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타 학회가 많이 사용하는 공용시스템에 비해 시스템안전성, 속도, 심사 및 게재비용 결제시스템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212144의 사무 분석에 의한 국내외 회원사의 저작권료로 인출에 관한 환경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그림 1. 한국환경경제학회 원스톱 논문심사시스템

논문은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의 방법으로는 투고를 받지 않고 자기표절을 확인하기 위해 KCI 논문표절검사에 따른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내에 독자적인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는데 이는 투고자, 심사자, 편집자 등 모두 온라인 투고 논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의 독자적인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은 논문투고와 심사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어 투고자에게는 논문 작성, 논문 투고, 심사 진행 사항 확인, 심사결과 조회, 수정 논문 업로드, 게재비용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심사자에게는 심사 대상 논문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서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 하거나 심사시스템에서 직접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심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표 4.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분석

이용자	특징	비고
투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작성, 논문 투고, 심사 진행 사항 확인, 심사 결과 조회, 수정 논문 업로드, 게재 비용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함. ·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시스템의 경우 논문 투고와 심사 결과 조회가 가능하나 게재 비용 납부는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없음.
심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용이하게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나 쉽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심사서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 하거나 심사시스템에서 직접 심사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시스템에서는 심사위원이 로그인 하여 심사시스템에서 직접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편집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의 독자적인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회의 독립성과 전통을 유지 · 논문투고·심사의 전 과정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학회들이 온라인 논문심사 공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고된 논문, 심사서 파일 등을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으며,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학회 논문을 무료로 제공함. ·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시스템의 경우 유지 보수비용이 적게 들고 DB 관리가 안정적이다.

심사자는 총 3인으로 배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편집위원장 주도하에 편집부 위원장, 편집차장이 편집위원에게 적정 심사자 배정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집위에서 심사자를 배정·의뢰하고 있으며 영문초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통번역기업을 통해 원어민 교정을 실시하여 피인용지수를 높이며, 영문논문 투고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논문 편집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소속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학문 영역별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학문영역별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편집규정에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자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항)하고 편집위원장은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학회의 회원 중에서 한국항만경제학회장(이하 회장)이 위촉(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②항)하며 편집위원은 정규대학의 조교수 이상인자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자 또는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 실적이 총 20편 이상인 학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③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논문심사자는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논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총 7개의 평가항목을 기초로 하여 논문을 다각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연구 제목은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이며, 논문의 연구 제목이 전체 논문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으며, 논문의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선행연구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이며, 논문의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하며, 세 번째 평가 항목은 '연구에 사용된 개념과 이론, 자료와 문헌은 적절한가?'이며, 논문 작성의 근간이 된 학술적 개념과 기본 이론이 왜곡 없이 잘 이용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인용한 자

료와 문헌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네 번째 평가 항목은 '연구방법은 적절한가?'이며,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다섯 번째 평가 항목은 '분석방법은 합리적이며, 연구과정에 일관성이 있는가?'이며, 연구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며 연구의 과정에 조작이나 부정 여부를 검정하고 있다. 여섯 번째 평가 항목은 '연구결과와 의미의 도출이 적절한가?'이며,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적합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일곱 번째 평가 항목은 '연구의 독창적·학술적 기여가 있는가?'이며, 연구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평가하고 있다. 심사자는 상기 평가 항목별로 평가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평가 항목을 종합하여 심사자는 종합평점을 내리며 판정기준은 모두 우수 이상일 때 A(현 상태 게재), 보통 이상인 경우 B(수정 후 게재), 미흡 또는 매우미흡이 포함되어 있을 때 C(수정 후 재심) 그리고 매우 미흡이 둘 이상인 경우 F(게재 불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III. 학술지의 학문적 가치

1. 인지도 및 활용도

학술논문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학술지 우수성 지표인 학술지 영향력지수(Journal Impact Factor), 논문의 우수성 지표인 피인용 횟수(Times Cited)를 중심으로 분석·제시하고 기타 KCI에서 제시하는 즉시성 지수, 중심성 지수, 자기인용비율 등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기준년도 2018년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5. 농수해양학-해상운송학 분야의 영향력 지수(2년IF)

분류	순위	학술지명	발행기관	중분류	영향력지수(2년IF)
농수해양학 (총 77종)	1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	해상운송학	1.00
	2	한국약용작물학회지	한국약용작물학회	농학	0.99
	3	한국식품영양학회지	한국식품영양학회	식품과학	0.96
	4	한국자원식물학회지	한국자원식물학회	농학	0.85
	5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식품과학	0.81
	6	농촌지도와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	농학	0.81
	7	해운물류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상운송학	0.80
	8	수산경영론집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학	0.75
	9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	조경학	0.73
해상운송학 (총 4종)	1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	해상운송학	1.00
	2	해운물류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상운송학	0.80
	3	해양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운송학	0.48
	4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	해상운송학	0.44

자료 : KCI, 기준년도 2018년, 인용지수계산일 2019.8

본 학회지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연구분야의 대분류 농수해양학(농학, 임학, 조경학, 축산학, 수산학, 식품과학)중 해상운송학(중분류)에 해당된다. 분석 결과 본 학회의 연구 분야인 (대분류) 농수해양학 학술지 중(총 77종) 영향력 지수(2년 IF) 1순위, (중분류) 해상운송학 학술지 중(총 4종) 영향력 지수(2년 IF) 1순위로 학술지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본 학회지가 속해있는 연구 분야의 (대분류)농수해양학, (중분류)해상운송학 분야와 본 학회지의 KCI IF, 즉시성 지수,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자기인용비율의 5가지 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모두 우수한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대분류

의 경우 농수해양학의 KCI IF 2017년 0.47, 2018년 0.45/즉시성 지수 2017년 0.12, 2018년 0.13/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7년 0.27, 2018년 0.27/자기인용비율은 2017년 41.86%, 2018년 40.2%에 이르렀다. 중분류의 경우 해상운송학의 KCI IF 2017년 0.81, 2018년 0.68/즉시성 지수 2017년 0.19, 2018년 0.14/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7년 0.61, 2018년 0.46/자기인용비율은 2017년 24.1%, 2018년 32.82%에 이르나 본 학회지의 경우 KCI IF 2017년 1.18, 2018년 1.0 /즉시성 지수 2017년 0.22, 2018년 0.14/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7년 1.02, 2018년 0.78/자기인용비율은 2017년 13.33%, 2018년 21.79%에 이르고 있다.

표 6. 농수해양학-해상운송학-한국항만경제학회지 KCI 인용지수 비교

분류	년도	학술지 총수	총논문수 (평균 총 논문수)	총 피인용 횟수 (평균 총 피인용 횟수)	KCI IF (2년)	즉시성 지수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자기인용 비율(2년)
대분류 농수 해양학	2017	75	10,615	4,974	0.47	0.12	0.27	41.86
	2018	77	10,130	4,609	0.45	0.13	0.27	40.2
중분류 해상 운송학	2017	4	309(77.25)	249(62.25)	0.81	0.19	0.61	24.1
	2018	4	287(71.75)	195(48.75)	0.68	0.14	0.46	32.82
한국항만 경제학회지	2017		89(15~16년)	105	1.18	0.22	1.02	13.33
	2018		78(16~17년)	78	1.0	0.14	0.78	21.79

자료 : KCI, 기준년도 2018년, 인용지수계산일 2019.8

표 7. 해상운송학 분야 학술지 KCI 지수 비교

학술지명	영향력 지수 (2년 IF)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중심성 지수 (3년치 기준)	즉시성 지수	자기인용 비율(%) (2년 KCI IF)	총 논문수 (2년)	총 피인용 횟수(2년)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00	0.78	1,054	0.14	21.79%	78	78
해운물류연구	0.80	0.54	0,947	0.19	32.69%	65	52
해양정책연구	0.48	0.38	0,790	0.14	21.43%	29	14
한국항해항만학회지	0.44	0.21	0,588	0.12	52.94%	115	51

자료 : KCI, 기준년도 2018년, 인용지수계산일 2019.8

표 8. 중분류 기준 인접·유사학문과의 KCI 지수 비교(2018년 기준)

분류	학술지 총수	총 논문수	총 피인용 횟수	자기 피인용횟수	KCI IF (2년)	즉시성 지수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자기인용 비율(2년)
무역학	17	1,784	1,340	486	0.75	0.26	0.48	36.27%
경영학	83	5,538	5,769	1,889	1.04	0.29	0.7	32.74%
경제학	62	2,659	1,776	347	0.67	0.24	0.54	19.5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4	78	78	-	1.0	0.14	0.78	21.79%

중분류 해상운송학 분야에는 한국항만경제학회(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해운물류학회(해운물류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정책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한국항해항만학회지) 등의 4종의 학술지가 있다. 중분류 4종 학술지의 KCI 지수를 비교해보면 본 학회지의 경우 영향력 지수, KCI IF(2년, 자기인용제외), 중심성 지수(3년 치 기준), 총 피인용 횟

수(2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다만 즉시성 지수 및 자기인용비율의 경우 4종 학술지 중 2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술지 우수성 평가를 위해 현재 속해 있는 해상운송학 분야에서 인접·유사학문분야인 무역학, 경영학, 경제학으로 확장하여 KCI 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무역학, 경제학에 비해 우수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기인용비율은 경제학과 근소한 차이로 미흡하나 무역학, 경영학에 비해 우수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즉시성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인접학문인 무역학의 주요 학술지와 KCI 지수를 비교하였다. 무역학에는 총 16개 학회의 총 17종의 학술지가 있는데(무역전시연구, 통상정보연구, e-비즈니스연구, 관세학회지, 국제상학, 무역학회지, 중재연구, 무역보험연구, 유통경영학회지, 무역연구, 무역상무연구, 전자무역연구, 무역통상학회지,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국제통상연구, Journal of Korea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본 학회지와 무역학 분야의 학술지와 비교결과 영향력 지수(2년 IF) 3위, KCI IF(2년, 자기인용제외) 4위, 중심성 지수(3년치 기준) 5위로 상위 30%내의 우수성을 보이고 있으나 총 피인용횟수(7위), 즉시성 지수(10위)의 경우 상위 41-58%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유사학문(무역학) 학술지와 KCI 지수비교(2018년 기준)

분류	순위	비율
영향력 지수(2년 IF)	3	17.6%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4	23.5%
총 피인용횟수(2년)	7	41.2%
즉시성지수	10	58.8%
중심성 지수(3년치기준)	5	29.4%

자료 : KCI, 기준년도 2018년, 인용지수계산일 2019.8

유사학문인 경영학, 경제학의 총 145종 학술지와 KCI 지수를 비교한 결과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총 피인용 횟수(2년)가 각각 상위 23.4%, 영향력 지수(2년 IF) 상위 31.0%에 해당되는 우수성을 보이고 있으나 즉시성 지수, 자기인용비율, 중심성 지수가 상위 45-57% 범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유사학문(경영학, 경제학) 학술지와 KCI 지수비교(2018년 기준)

분류	순위	비율
영향력 지수(2년 IF)	45	31.0%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34	23.4%
총 피인용횟수(2년)	34	23.4%
즉시성지수	84	57.9%
자기인용 비율(%) (2년KCI IF)	74	51.0%
중심성 지수(3년치기준)	66	45.5%

주 : 경영학 83종, 경제학 62종 총 145종과의 비교

2. 피인용 횟수

학술지 논문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피인용 횟수에서 농수해양학 학술지 분야 19위/77종(상위 25%), 해상운송학 학술지 분야 1위/4종(상위 25%), 인접학문(무역학) 학술지 분야 7위/17종(상위 41.2%), 유사학문(경영학, 경제학) 학술지분야 34위/145(상위 23.4%)에 해당되어 무역학분야와의 비교를 제외하면 상위 30%이내에 위치하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표 11. 연구 분야 별 학술지의 피인용 횟수 비교

구분	학술지 수	순위	상위 비율
농수해양학	77	19	24.6%
해상운송학 학술지	4	1	25.0%
인접학문(무역학) 학술지	17	7	41.2%
유사학문(경영학, 경제학) 학술지	145	34	23.4%

자료 : KCI, 기준년도 2018년, 인용지수계산일 2019.8

농수해양학 총 77종 학술지 중 최근 2014-2019년 피인용 횟수 상위논문 TOP 100에서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게재논문 총 5편, 해상운송학 분야에서는 총 47편이 랭크되어 있다. 특히 해상운송학 분야에서는 상위논문 TOP 47%에 해당하는 논문이 본 학술지에서 발간된 논문으로 해당 연구 분야의 독보적인 우수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

용 순위 TOP100에서 농수해양학 분야에서는 5위, 위인용횟수에 랭크되어 있어 질적 우수성을 입증해 해상운송학 분야에서는 1, 2, 3, 5 순위 등 다수 상 고 있다.

표 12. 농수해양학 분야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인용횟수 상위논문 TOP 100

순위	학술권호	논문제목
5	30(2)	DEA를 활용한 해운·물류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18	30(1)	세계 주요 정기선사의 항만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52	30(3)	국내 물류시장의 현황과 물류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63	30(1)	AHP 기법을 활용한 항만물류기업의 직업기초능력 우선순위 분석
63	3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세계 해운경제의 연구 주제와 동향에 대한 연구

표 13. 키워드 순위 및 논문비율

순위	농수해양학)해상운송학 키워드 순위			한국항만경제학회지 논문 키워드 순위			해상운송학 대비 학회논문비율	전체논문 대비 학회논문비율	비고
	키워드명	분야논문	전체논문	순위	키워드명	논문			
1	부산항	18	105	1	부산항	10	55.6%	9.5%	
2	AHP	14	1,174	2	인천항	5	50.0%	10.2%	
3	DEA	14	609	2	항만	5	62.5%	6.2%	
4	효율성	12	1,033	4	물류센터	4	57.1%	11.4%	
5	컨테이너터미널	11	55	4	컨테이너터미널	4	36.4%	7.3%	
6	해운기업	10	33	4	물류기업	4	66.7%	5.6%	
7	인천항	10	49	7	집중도	3	100.0%	8.3%	50위 외
8	컨테이너터미널	9	66	7	항만효율성	3	100.0%	33.3%	50위 외
9	시물레이션	8	1,040	7	아시아컨테이너항만	3	100.0%	100.0%	50위 외
10	항만	8	81	7	녹색물류	3	100.0%	9.1%	50위 외
11	해운산업	8	30	7	해양산업	3	50.0%	17.6%	
12	물류센터	7	35	7	DEA	3	-	-	방법론
13	해양사고	7	145	7	항만클러스터링	3	100.0%	75.0%	50위 외
14	Fuzzy-AHP	7	46	7	클러스터링	3	100.0%	1.3%	50위 외
15	평양항	7	53	7	물류	3	75.0%	2.4%	50위 외
16	중력모형	6	197	7	평양항	3	42.9%	5.7%	
17	해양산업	6	17	7	다중회귀분석	3	-	-	방법론
18	백터오차수정모형	6	196	7	AHP	3	-	-	방법론
19	컨테이너	6	67	7	상관분석	3	-	-	방법론
20	물류기업	6	72	7	변이할당분석	3	-	-	방법론
평균							52.6%	9.2%	

주 : 방법론은 연구주제로 부적절하여 제외함. 50위 외는 해상운송학 키워드 순위 50위 밖으로 본 학회지 논문이 100%에 해당하여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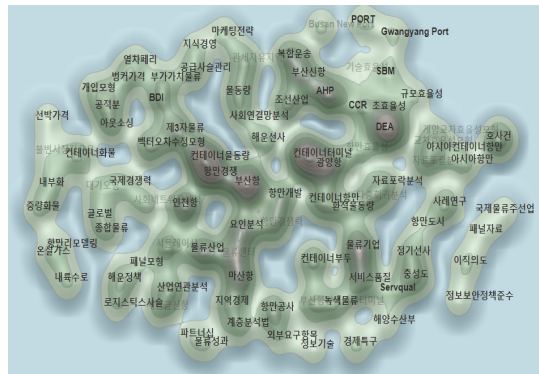
자료 : KCI

3. 주제부합성

계재논문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시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키워드 클라우드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5-2019년 5년간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키워드 클라우드와 해상운송학 분야 학술지 논문 키워드 클라우드를 비교) 분석결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항, 항만 등의 주요 키워드가 일치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학술지의 주제가 타 해상운송학 학술지의 학술적 트렌드와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본 학술지가 해상운송학의 학술주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학술지의 계재논문이 해상운송학 분야의 학술주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상운송학의 키워드 순위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논문의 키워드 순위를 도출하고 도출된 키워드 중심으로 분야별 논문의 비중을 계산하여 흐름주도여부를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논문 키워드 순위 20위 중 8개의 키워드가 해상운송학 분야 논문 키워드 20위내의 주제와 일치하며 8개 키워드에 해당하는 해상운송학 분야의 본 학술지 학회논문이 평균 52.6%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운송학분야의 연구주제를 리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8개의 키워드는 해상운송학 분야를 포함 KCI 등록 전체 분야 논문에서 9.2%를 차지하고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항만경제학회 Topic Landscape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본 학술지가 추구하는 주제에 부합되고 특히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발행한 학술지에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H-지수 TOP10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 분야가 대부분 국제운송 및 물류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주제부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자료 : KCI

그림 2 한국항만경제학회 Topic Landscape

표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논문 작성한 연구자 H-지수 TOP10

순위	소속기관	연구분야	총 논문수	H 지수
1	목포대학교	-	135	13
2	중앙대학교	국제운송및물류	87	10
2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운송및물류	52	10
2	인천대학교	국제운송및물류	169	10
5	조선대학교	항만경제/관리	58	9
5	성균관대학교	국제운송및물류	123	9
5	동아대학교	투자/위험관리	72	9
5	한국해양대학교	자원/환경경제	59	9
5	조선대학교	국제/세계경제	63	9

자료 : KCI

IV. 학술지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1. 연구윤리 노력

한국항만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1984년 6월 30일 제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³⁾

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처리절차는 본 규정 제2장(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절차)에서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5조)→예비조사결과와 보고(6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7조)→조사위원회의 구성(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10조)→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13조)→판정(1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 대책에서는 조사위원회의 판정이후 연구지원기관 등에 보고(15조)→결과에 대한 조치(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17조)로 구성되는데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는 회장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회장은 이에 대해 징계조치를 결정하여 조치사항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게 된다.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한 기록은 사무국에서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연구윤리를 위배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는 혐의, 무혐의로 판정하고(제14조, 판정),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는데(제15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관한보고), 조사

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하고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한다. 징계조치에는 영구제명, 회원자격정지, 논문제출 자격정지, 게재무효 등으로 명할 수 있다.

논문심사의 엄정성·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편집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에서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논문의 심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동일 대학 또는 기관의 조사위원을 적극 배제하고 있다. 또한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편집규정 제7조 ③항, 심사위원)하는데 편집위원장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부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심사규정 제2조 ③항, 심사위원), 사무국장, 간사 등 학회 업무 담당자의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관련 업무를 편집위원장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심사규정 제2조 ⑤항,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다. 연구윤리부정행위로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시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배제(연구윤리규정 제8조 ③항,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하고 연구윤리부정행위로 조사위원회 구성시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기관소속이 아닌 외부인사 2인 이상 위촉(연구윤리규정 제9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②항, 조사위원회의 구성)하며 연구윤리부정행위로 조사위원회 구성시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서 배제(연구윤리규정 제9조 ③항 조사위원회의 구성)하게 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회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 10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연구윤리규정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규정의 교육 및 홍보, 연구윤리 관련 학회정책 및 규정 제정,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위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실시,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규정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에 포함 등의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을 강

3) 제3조(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화하고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부정행위 진행 절차를 교육하고 있다. 특히 논문투고 안내 시 연구윤리준수 안내를 별도로 하여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매뉴얼,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신고 등의 바로가기를 운영하고 있다.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 중 현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없었으며 논문표절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논문을 검사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저자는 함부로 투고 논문을 표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윤리의 강화를 위해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사무국 합동으로 연구윤리규정의 연구부정 의미 재정비, 온라인 출판 및 유통 관련 연구윤리규정 고도화, 연구윤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법률전문가 위촉, 논문편집 및 심사과정의 편집위원회 공정성 강화, 논문출판과정에서의 이해관계당사자 간 윤리적 규정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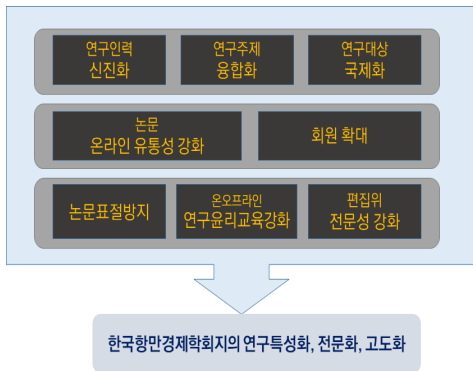
또한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체계상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0점'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으로 처리 및 학술지 등급취소 가능하게 되어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 활동 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학술지의 부족한 부분은 존재는 하나 만든지 오래되어 명확한 연구윤리 개념 및 용어, 절차 등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연구윤리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연구윤리위의 왕성한 활동이 요구된다. 이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온, 오프라인 연구윤리관련 회의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실질적 연구윤리문화가 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독자확보 노력

학술지 양식과 형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와 공동 논문 모집, 편집위원 위촉 및 교류 등을 강화해야 한다. 80여 개 이상의 각 대학의 해운항만물류, 국제운송, 국제물류 관련 학과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술지의 활용을 홍보하고 신진학자 DB를 통해 한국환경경제학회의 미래 회원으로 유도하며, 학술대회를 통해 기관회원의 활동을 유도하여 산학연 융합연구 및 합동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발표 세션을 별도로 운영하여 연구의 지속성과 심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존 국내 항만, 해운물류 전공학자들의 우수논문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Google 등 유명 검색엔진에 상위 노출을 위해 홈페이지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영문화를 추진하여 해외학자 및 해외 학술대회에서 학술지를 직접 소개하는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학자 우수논문을 유치 위해 본 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참가논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많은 학회가 책자형태의 학회지 발행을 지양하고 있으며 학술지 재 인증 평가 신청의 경우 발행횟수, 발행일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빙용 책자 몇 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백부의 책자를 발행하고 우편발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 15.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연구특성화·전문화·고도화 전략

구분	내용
연구인력 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연구자 포함, 대학원생 등 신진 연구자 계층중심으로 학술연구 지원 신진학자 DB 구축, 중견연구자와 협업 연구 통해 연구조직의 활성화를 유도
연구주제 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운송학 각 분야간 융합연구 가능하도록 학제간 융합연구 중점지원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학문적 영역 지속발굴·확산
연구대상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학술대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간 교류를 강화
온라인 유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I, eISSN, 무료원문서비스 제공 및 검색기능 강화
기관회원 가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대회 통한 기관회원 활동유도, 산학연 융합연구 및 합동연구 강화
연구윤리 강화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윤리 강화 및 고도화 논문표절방지, 온오프라인 회원교육강화, 편집위 전문성 고도화



3. 학회의 연구특성화·전문화·고도화 노력

학회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항만과 물류 분야의 연구정체성,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 문제 해결형의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정책제시 및 운영을 통하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의 산출물은 다시 한국항만경제학회지에 게재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 폭을 넓히고 신진학자들의 우수 논문 발굴을 위한 기회의 장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회원 참여로 소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항만, 물류, 해양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국항만경제학회는 창립된지 35년 전통(1985년 창립)의 학회로서 항만, 물류 및 해양산업분야의 전문학술지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5여년간 지속발간되어온 학술지의 역사와 현 상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해운항만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문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지침에 맞춰 학술지 체계성, 학술지 학문적 가치 등을 2017년 1호부터 2019년 4호까지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영향력지수, 피인용 횟수, 즉시성 지수, 중심성 지수, 자기인용비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수해양학 KCI IF(2년) 1위/77종, 피인용 횟수 19위/77종, 해상운송학 학술지 KCI IF(2년) 1위/4종, 피인용 횟수 1위/4종 등을 차지하여 학술지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향후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학회차원에서의 연구윤리 확보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구윤리 용어의 재정립,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명확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술지의 대중화 및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확보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지 양식과 형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와 공동 논문 모집, 편집위원 위촉 및 교류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운항만물류, 국제운송, 국제물류 관련 학과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

으로 학회참여 및 학술지 투고독려를 통해 미래의 독자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술지의 발전은 학회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학회활동의 전문성, 특성화, 대중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회는 향만물류 분야의 연구정체성,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각종 문제 해결형의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정책제시와 학술대회의 운영성 제고를 통하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증대와 신진학자의 발굴 및 학회 회원들의 연구력 향상에도 기여하여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향만경제학회지 제33권 1호(2017)~35권 4호(2019)

http://www.kportea.or.kr/treatise/treatise_list.asp

https://www.kci.go.kr/kci_portal/po/search/poArtiSearch.kci?sereId=001504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학술적 가치와 발전전략

서문성 · 김승철 · 안태건 · 김동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학술적 가치와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항만경제학회는 1985년 설립되어 항만경제학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항만물류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와 학회지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호부터 2019년 4호까지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영향력지수, 피인용 횟수, 즉시성 지수, 중심성 지수, 자기인용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수해양학 KCI IF(2년) 1위/77종, 피인용횟수 19위/77종 해상운송학 학술지 KCI IF(2년) 1위/4종, 피인용횟수 1위/4종 등을 차지하여 학술지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학술지의 발전방향을 연구의 고도화, 특성화, 전문화로 구성하고 연구윤리의 정착 및 독자확보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학술지 영향력지수, 피인용횟수, 연구윤리